

7월 1일부터 야간, 토요일 및 공휴일에 동네 의원 이용이 편리해집니다

「의원급 의료기관 수술 행위 가산제」는 야간·토요일·공휴일에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, 동네 의료기관의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.

야간 및 휴일에는 집에서 가까운 동네의원이 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수술적 치료를 받기위해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

동네의원에서 야간이나 주말에 편리하게 수술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동네 의료기관의 야간·주말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.

따라서, 야간, 토요일 및 공휴일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을 경우 평일 낮 진료와 비교하여 수술적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추가 발생됨을 알려드립니다.

■ 주요 내용

대상시간	평일 18시 ~ 익일 09시 / 토요일, 일요일 및 공휴일
내 용	의원, 치과의원, 보건의료원 내 의과 및 치과 외래 진료 시 시행되는 수술비(해당 수술에 동반되는 마취 포함) 30% 가산 적용 ※ 가산적용 수술적 치료에 대한 정보는 (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→ 알림 → 공지사항 3308호)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